

## 言語篇

劉會曰、言不中理 不如不言。

⇒유회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劉會が言うのに言葉が理にかなっていなければかえってものを言わないより良くない。

一言不中 千語無用。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一言が理にかなっていなければ多くのものを言っても無駄だ。

君平曰、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也。

⇒군평이 말하기를,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다.

⇒郡平が言うのに口と舌は災いと懸念を呼び入れる門で身を台無しにする斧のようだ。

利人之言 煖如綿絮 傷人之語 利如荊棘 一言半句 重值千金 一語傷人 痛如刀割。

⇒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우니,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말은 그중한 값이 천금이나 되고, 사람을 해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프다.

⇒人をよくする言葉は綿のように暖かくて、人を害する言葉は刺のように鋭いから、人をよくする一言はその重さが千金のようで、人を害する一言は刀で切ることのように痛い。

口是傷人斧 言是割舌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끼와 같고 말은 혀를 끊는 칼과 같으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하고 어디를 가나 안전하다.

⇒口は人にけがをさせれば斧のようで言葉は舌を切る刀のようだから口をつぐんで舌を深く隠せば身が楽でどこに行っても安全だ。

逢人且說三分話 未可全拋一片心 不怕虎生三箇口 只恐人情兩樣心。

⇒사람을 만나거든 잠시만 말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편의 마음까지 다 던져버리지 말라. 호랑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두가지 마음 가진 사람(두 마음을 품은 것)이 두렵다.

⇒人に会ったら少しの間だけ話をして自分が持っている最後の一片の心まですべて投げてしまわないこと。虎と言う三人の人の口が恐ろしいのではなくただ二つの心持った人(二つの心の志)が恐ろしい。

酒逢知己千鐘少 話不投機一句多。

⇒술은 친한 사람을 만나면 천 잔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酒は親しい人に会えば千杯も少なく、言葉は意味が当たらなければ一言も多い。